이용섭 "일자리 창출, 노사 협력 당부"

이용섭 당선인은 지난 18일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계 관계자들과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 경제 정책"
'당선인 첫 행보' 상의 · 한노총 · 민노총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당선 후 광주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행보로 광주지역 노동계와 경제계 관계자들을 만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19일 광주혁신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섭 당선인은 지난 14일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 이어 18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를 차례로 방문,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당선인이 노동계와 경제계를 첫 방문지로 결정한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광주경제를 살려 돌아오는 광주로 만들겠다' 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이날 노동계 관계자들은 "노동친화와 노동존중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고, 노동문화와 노동가치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사가 협력해 가야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 유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선인이 경제계와 노동계를 가장 먼저 찾아 준 것은 매우 의미있는 행보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경제계와 노동계가 협력하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지역사회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야 하며, 일자리는 시민의 권리이자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광주발전 정책이고 복지정책이다"며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기관 평가에 일자리 창출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청년일자리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등 시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

시, 산하기관장 공모 '부적절' 논란

시장 임기종료 시점 과기진흥원장 면접 구설수

민선 6기 임기종료를 앞두고 광주시 산하기관인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이 공석 중인 원장 공모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서대석 전 원장의 후임 선출을 위한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4일 제5대 원장 채용공고를 냈고, 20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있다. 1차 시험인 서류심사를 거쳐 2차 시험은 원장후보 추천위원회의 면접시험인데 공교롭게도 윤 시장의 임기 마지막날인 29일로 예정돼 있다.

추천위는 과학기술정통부장관 추천 2인, 진흥원 이사장(경제부시장) 추천 1명, 광주시장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 안팎에서는 민선 7기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공모가 '부적절하다' 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측에서도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시 산하기관장 공모에 나선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특정후보를 염두에 두고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접을 통해 2명이 복수 추천되면 7월 열리는 진흥원 이사회에서 적임자를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의 승인과정을 거치는 만큼 민선 7기에서 원장을 선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 인력 유치와 정주 등 연구환경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정통부와 광주시의 출연기관이다. 원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조기철 기자

장석웅 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 출범

자문 · 전문 위원 등 100여명 참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당선인의 원활한 업무 인계 · 인수를 위해 전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20일 출범한다.

인수위는 교육현장의 지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 공감 인수위원회' , 정책수립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형 인수위원회' , 공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형 인수위원회' 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10명 등 총 12명이다. 인수위원 외 자문위원(약 50명), 전문위원(28명), 실무팀(약20명), 행정지원팀(6명)으로 재정전략, 정책공약, 조직혁신, 도민소통, 기획운영 등 5개의 분과를 둬 전문성과 함께 다양한 내용을 담는다.

인수위는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결정하는 '전남교육권리장전' 을 실현할 의제형 위원과 진보교육감 시대를 열어 가는 실무형 현장교육 전문가, 교육복지 확대와 지역교육공동체 정책공약의 중장기 로드맵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 현안사업과 공약별 · 과제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T/F는 각 분과별로 운영해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장석웅 당선인이 주요 업무와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확한 사무 인계 · 인수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은 물론 지방 교육행정의 계속성 ·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광주서 미래 첨단 금형기술 만난다

20~23일 DJ센터서 '광주국제 금형산업전'

광주시는 미래 첨단 금형기술과 제품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18 광주국제금형산업전' 이 20일부터 23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국제 금형산업전' 은 광주시와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공동 주최로 2년마다 광주에서 열리며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독일 · 일본 · 중국 등 14개국 143개사가 참여해 350부스를 운영한다.

개막 첫 날에는 (사)한국금형기술사회 주관으로 '2018 한국금형비전포럼' 이 '산업융합을 선도하는 스마트 금형기술' 을 주제로 열린다.

또 나이스솔루션㈜, ㈜엔씨비, 한국시스템㈜, 화천기계㈜, ㈜우진플라임, 히타치금속한국㈜, 유니벨㈜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종 신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일본 금형공업회 국제위원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이토제작소 이토스미오 회장이 '일본의 최신 금형기술동향' 을 소개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금형 Smart Factory 구축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 를 주제로 강연한다.

오는 22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지역 금형인의 한마당 축제 '제5회 금형인의 날' 행사에서는 지역경제 유공자 표창과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앙광장에서는 'NEXO와 함께 하는 수소전기하우스' 전시관이 전국 최초로 개관하고, 증강현실(AR)을 이용한 AR도슨트 투어, 수소전기차 에너지 원리와 미래 수소 사회체험, 수소전기차 NEXO 전시, 수소전기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체험 과학교실이 오는 7월 15일까지 운영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산업전 기간에는 일본 · 중국 등 10여개국 32개사 등 200여명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상시 운영되며, 다양한 해외마케팅을 통해 금형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2018 광주국제 금형산업전' 이 지역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시회를 통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개척과 매출증대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전남 55개 해수욕장 내달 개장

전남도는 19일 "7월 6일부터 완도 신지명사십리,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총 55개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개장하는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전남대표 해수욕장으로, 긴 백사장과 울창한 해송림을 자랑한다.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은 올해 새롭게 개장하는 해수녹차센터를 비롯해 해수풀장을 갖춰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전남도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대회 8개와 체험교실 9개가 준비됐다.

여수와 무안에서는 7월 바다수영대회, 8월 전국윈드서핑대회, 보성과 함평에서는 7월 전국비치발리볼대회 등이 열리고, 해양레저스쿨, 요트학교, 스킨스쿠버교실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교실이 운영된다.

/정근산 기자

김영춘 해수부장관, 오늘 신안염전 방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신안군 증도면에 자리한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 '태평염전' 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와 간담회를 한다고 해수부가 19일 밝혔다.

태평염전은 연간 1만6,000t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염전이다. 이 곳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6%를 차지한다.

해수부는 "이 곳은 소금생산을 넘어 소금박물관과 염생식물원 등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연간 10만여명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며 "6차 산업 혁신기업의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